세계광엑스포 입장권 53만매

공무원 '강제할당' 논란

디자인비엔날레도 … 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광주시 "지자체 행사 공무원 솔선수범해야"

광주시가 주최하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와 '2009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의 입장권 강제배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에 따르면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전시장 예상 관람객 140만명의 80%인 112만명을 유료관람객 목표로 정하고 이 가운데 62%인 70만명의 입장권을 오는 9월25일까지 사전 예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53만매를 할당키로 했다.

시는 또 오는 9월18일 개막하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입장권과 관련해 예약판매분 분담을 놓고 비엔날레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강제할당'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해 매년 이같은 관행이 되풀이되자 광주시 각 구청 산하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광엑스포재단측은 일선 구청에 광주세계광엑스포 입장권 17만9천매를 배부키로 했으나 구청 노조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노조측은 각 자치구별로 3만~4만5천매가 배부될 경우 직원 1인당 100매 이상 주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본청에는 실과별로 배부하지 않고 판매현황 실적도 집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장권 33만매를 배부키로 노조측과 합의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동구지부 김광수 지부장은 "자치구에 표가 할당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할당이) 현실화되면 비상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난해 비엔날레를 비롯한 '표 할당제'가 연례 행사로 굳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본부와 협의한 뒤 절차와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행사입장권을 배부할 계획이었다"며 "공무원들이 행사성공을 위해 솔선수범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는 총 사업비 330억원이 투입돼 10월9일부터 11월5일까지 28일간 상무시민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부모들 반성문 쓰세요"

광주 모 고교 여교사 부적절한 생활지도

체벌·금품수수 감사도

광주지역 한 고교의 여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명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이 여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가하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광주 모 고교 A교사(여·58)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지각, 조퇴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반성문과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사건의 명확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피해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의 대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교사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사법권이 없는 만큼 금품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교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용가를 꿈꾸던 한 남자 고교생(19)이 A교사로부터 폭행과 특정학원 수강 강요, 잦은 반성문 강요 등 폭력적 행위를 받고, 학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피해 학생의 부모가 A교사에게 2007년부터 2년동안 총 28회에 걸쳐 48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이날 해명서를 통해 "어떤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학부모가 제기한 금품수수와 학원유착 문제도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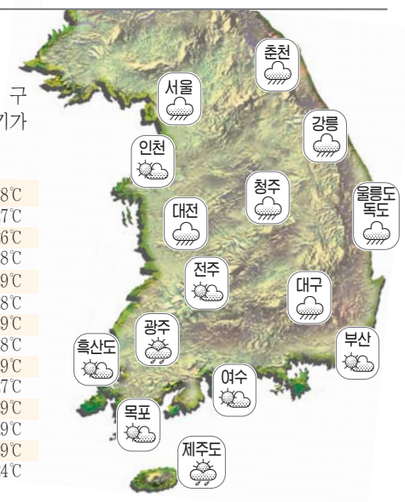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2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16시 33분 / 달짐 01시 42분

흐린 여름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구름많고 한때비	19/28℃
목 포	맑은뒤 흐림	18/27℃
여 수	맑은뒤 흐림	20/26℃
완 도	맑은뒤 흐림	19/28℃
구 례	흐리고 한때비	18/29℃
해 남	맑은뒤 흐림	19/28℃
장 흥	맑은뒤 흐림	19/29℃
고 흥	맑은뒤 흐림	18/28℃
순 천	흐리고 한때비	19/29℃
영 광	맑은뒤 흐림	18/27℃
진 도	맑은뒤 흐림	20/29℃
전 주	맑은뒤 흐림	18/29℃
남 원	흐리고 한때비	17/29℃
흑산도	맑은뒤 흐림	17/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10:46 --:--	04:34 16:27
여수	05:47 19:05	00:16 12:01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 씨						
최저/최고	19/31	20/32	21/31	22/27	21/30	22/32

'유네스코 亞 청년포럼' 조선대서 개막

세계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이 2일 방글라데시 등 22개국 청년활동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대 서석홀에서 개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자 어린이 성추행 여수 택시기사 검거

여수경찰은 2일 개인택시 기사 김모(39)씨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여수시 모 고교 앞길에서 혼자 놀던 A(6)군에게 "과자를 사 줄테니, 함께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3시간 동안 감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여고생 등을 상대로 "돈 줄 테니 차에 타라"며 유인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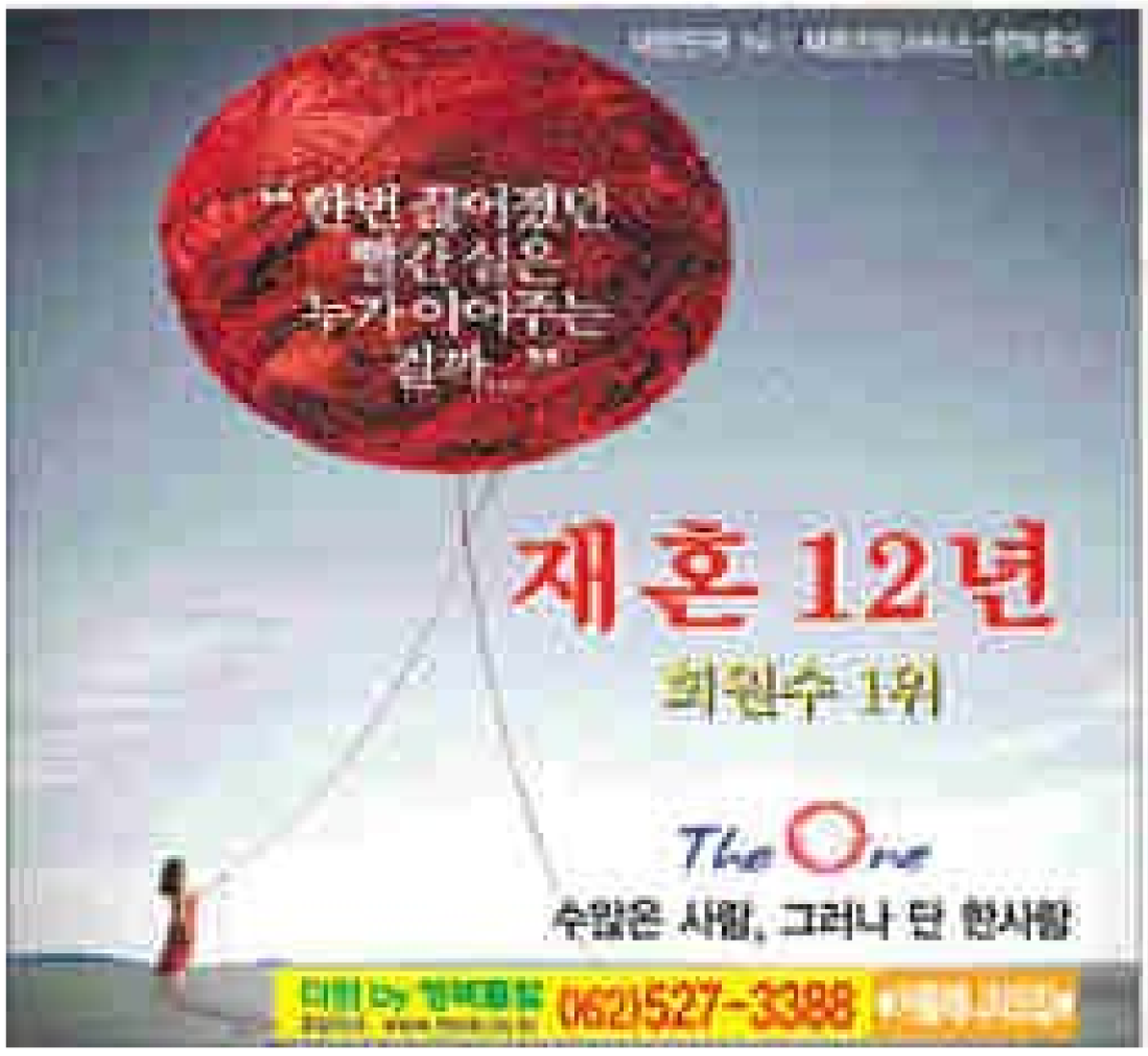
"2차 나간다" 격분 동거녀 폭행 치사

목포경찰은 2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25·무직)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목포시 한 식당 앞에서 동거녀 A(32)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여자친구가 2차를 나간다고 말을 해 이를 따지려고 나갔다가 홧김에 주먹질을 했다"고 말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순천 모 초등 교장 자해 중태

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모 지방신문 기자의 집에서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0분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모 일간지 기자 B씨 집 현관에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4차례 찔러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해 직전 B씨 집앞에서 살충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셨으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한 신문이 여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보도하자 B씨가 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